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연봉협상 최희섭이 뿔났다

구단 1차 협상서 2년전 연봉 3억5천만원 제시

"돈보다는 자존심 문제"… 포항캠프 대신 산행

최희섭이 돌연 포항행을 취소하면서 KIA 타이거즈 스토브리그에 난기류가 형성됐다.

최희섭은 15일 황병일 수석코치를 비롯한 김상현·이현곤·나지완 등과 함께 자체캠프를 위해 포항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희섭은 이날 포항행 대신 부모님과의 산행을 선택했다.

최희섭의 갑작스런 입장변화를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최희섭은 납회식이 끝난 후 오후 4시부터 구단과 1차 연봉협상을 가졌다. 이날 구단은 3억5천을 제시했고 최희섭은 5억을 요구했다.

3억5천은 2008년 최희섭의 연봉이다. 최희섭은 지난해 극심한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봉을 백지위임, 2억이 삭감된 1억5천에 재계약 도장을 찍었다. 구단은 올 시즌 활약에 대한 대가로 연봉 원상복귀를 협상 카드로 내밀었고 우승의 주역 최희섭은 이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것이다. 양측의 의견차이로 1차 협상은 결렬됐다.

최희섭은 협상이 끝난 직후 "양측의 입장차이가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단 포항에서 훈련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구단과 연봉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하룻밤사이 최희섭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전날 밤까지 황병일 코치와 전화 통화를 하며 포항캠프를 놓고 고심 했던 최희섭은 15일 오전 훈련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최희섭은 이에대해 15일 "연봉협상을 놓고 구단의 대우에 큰 상처를 받았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승팀 주역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말 한마디가 아쉽다. 한 개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고 밝혔다.

금액이 아니라 연봉협상을 놓고 오간 말이 심경변화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최희섭은 또 "속상함을 달래고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포항으로 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산에 올랐다"며 "구체적인 말과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심정으로는 계약 자체를 하지 않고 싶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포항에서의 맹훈련을 바탕으로 올 시즌 활약을 일구어낸 최희섭에게는 아버지와 다름없는 황병일 코치와의 포항 훈련을 포기 했다는 것은 단순한 훈련 포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구단측은 최희섭의 돌발행동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구단 관계자는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양측이 입장을 듣고 차이가 있으면 조율해가는 것이다"며 "협상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고 1차 협상 이후 따로 구단측과 접촉한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

상처를 받았다는 최희섭과 일반적인 협상과정이었다는 구단 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KIA의 스토브리그에 위기가 찾아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찬호 어디로?

필라델피아 日 이가라시 눈독… 사실상 결별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일본인 투수 이가라시 료타에게도 눈독을 들이면서 박찬호(36)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은 15일 인터넷판에서 불펜 강화에 나선 필리스가 이가라시 쟁탈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가라시는 임창용(33)과 더불어 올해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최강 계투진을 형성했던 오른손 투수로 시속 150㎞ 이상의 강속구를 뿌린다.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고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전날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 신문은 박찬호와 필리스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결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필리스는 올해 250만달러를 받은 박찬호에게 300만달러를 제시했으나 대폭 상승 요인이 많은 박찬호는 이를 거절하고 선발 투수로 출전할 수 있는 팀이나 불펜으로 뛸 수 있는 명문 구단을 물색 중이다.

루벤 아마로 주니어 필리스 단장은 "이가라시가 경험 많은 베테랑"이라고 평하면서 영입을 희망했다. 이가라시의 몸값이 2년에 200~300만달러 사이여서 필라델피아로서도 부담이 적다.

필리스는 강속구와 슬라이더가 돋보이는 왕년의 명투수 존 스몰츠와도 불펜 계약을 추진하는 등 박찬호와 거리 두기에 들어갔다.

한편 필라델피아는 토론토, 시애틀과 3각 트레이드를 통해 토론토의 우완 선발 투수 로이 할러데이와 계약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시드니항 수놓는 요트

호주에서 열린 국제 요트대회에 참여한 대형 요트들이 15일 오후 시드니항구를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다. 요트들은 비교적 바람이 거세게 분 이날 속력을 내며 시드니항구를 수놓았다. /연합뉴스

얼짱 골퍼 최나연 마술사 됐어요

미 LPGA에서 시즌 2승을 거두며 새로운 성공시대를 연 얼짱 골퍼 최나연이 15일 서울 화양동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불우환자돕기 마술쇼에서 간단한 마술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서희경-유소연 "첫단추 잘 꿰자"

KLPGA 2010 내일 개막

中서 레이디스 오픈

2009년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내년 시즌을 일찌감치 시작한다.

17일부터 사흘간 중국 푸젠성 샤먼의 오리엔트골프장(파72.6천508야드)에서 열리는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25만달러·우승 상금 4만5천달러)은 2010년 시즌을 여는 KLPGA 투어 개막전이다.

KLPGA 투어는 2006년부터 이듬해 개막전을 12월에 열고 있다. 한국 선수 40명을 포함해 대만, 중국, 일본 선수 116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2009년 1인자의 자리를 굳힌 서희경(23·하이트)과 이에 도전하는 유소연(19·하이마트)의 맞대결이다.

서희경은 올 한해 5승을 거두며 다승왕과 상금왕, 대상(최우수선수상), 최저타수상 등 주요 부문의 상을 모두 휩쓸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유소연도 비록 서희경의 활약에 밀리기는 했지만 4승을 올리는 실력을 보여주며 내년 시즌 강력한 라이벌로 자리잡았다.

내년 시즌도 서희경-유소연의 경쟁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숨을 죽였던 실력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던 최혜용(19·LIG)이 벼르고 있고 우승컵없이 한해를 보낸 김하늘(21·코오롱엘로드), 홍란(23·먼싱웨어)이 재기를 노리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2부 투어 상금왕 조윤지(18·캘러웨이)가 정규 투어 멤버로 데뷔, 언니 조윤희(27)와 자매 대결을 펼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8년 신인왕이자 올해 상금랭킹 7위에 오른 청야니(대만)가 출전,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편 이번 대회는 J골프가 17, 18일은 오후 3시30분, 19일은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빙속대표 16명 올림픽 간다

벤쿠버 대회…20명도 가능

역대 최다 출전 쿼터 확보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역대 최다 인원을 출전시킨다.

15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남녀 대표팀은 동계올림픽 예선으로 치러진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5차 대회를 치르면서 단거리에서 이규혁(서울시청)과 이상화(한국체대)가 활약하고 장거리에서 이승훈(전북도청)이 한국기록 경신 행진을 펼치며 총 16명(남자 8명, 여자 8명)의 출전 쿼터를 확보했다.

대표팀은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역대 최다였던 남자 8명, 여자 7명을 출전시켰지만 이번 밴쿠버 대회를 앞두고 여자부에서 1명을 더 확보하면서 이를 넘어섰다.

남녀대표팀 출전 쿼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남녀대표팀 모두 팀추월 종목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출전권을 확보하면서 기존 인원 이외에 남녀부에서 각각 2명씩 더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남녀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시리즈에 남자 10명, 여자 8명을 출전시켰는데 이중 남자대표팀의 최근원(의정부시청)과 송진수(한국체대)만 올림픽 기준기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원과 송진수가 동계올림픽 직전까지 치러지는 국제대회에서 종목별 기준기록만 통과하면 올림픽 출전자격을 얻을 수 있게 돼 남자부 쿼터는 10명으로 늘어난다.

여자대표팀도 팀추월 예선을 통과해 기존 8명에 2명의 인원을 더 확보, 남자대표팀과 마찬가지로 두 명을 추가로 선발해 올림픽 기준기록만 넘으면 10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역대 최다인 총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까지 출전시킬 수 있게 돼 역대 최다 메달도 노릴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